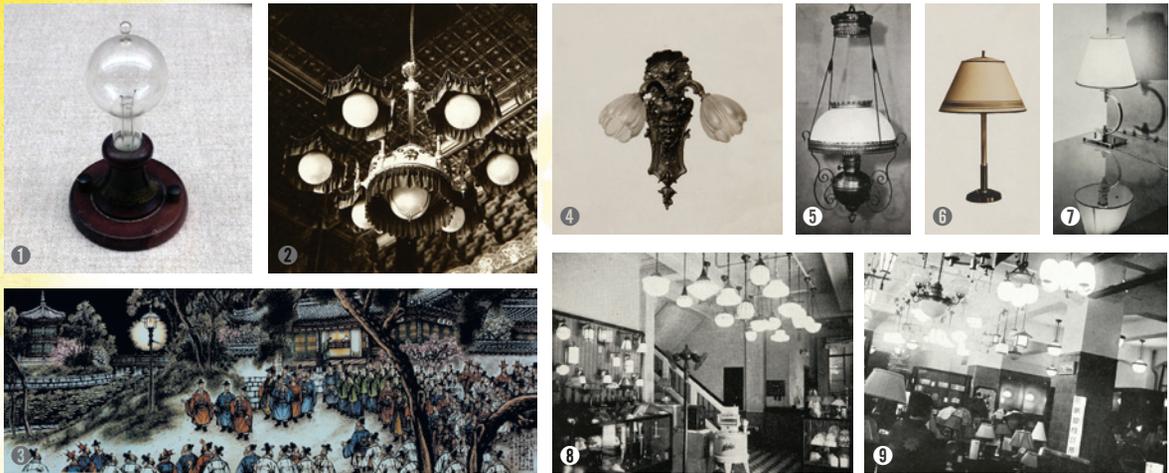


근대조명 - 전기도입과 전등(電燈) ①



전등은 새로운 조명의 시대를 열었다. 기존의 등화구가 발화구(發火具)를 이용해 연료를 태워 불을 밝힌 것이라면, 전등은 전기의 힘을 조절하여 빛을 밝히는 새로운 조명방식이다. 이것은 인간이 최초로 불을 밝힌 이래 조명의 역사에 큰 전환점을 이루었는데, 건축사가 레이너 베넘(Rayner Banham)이 말한 바와 같이 '인류가 불을 이용하게 된 이래 최대의 환경 혁명'이 된 것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전기 점등은 1887년 경복궁(景福宮) 안 건청궁(乾淸宮, 고종이 정사를 보던 곳)에서 일어났다. 대낮 같이 밝은 이 불을 처음 본 사람들은 '도깨비불', '물불', '건달불'이라고 불렀으며, 한자로는 '묘화(妙火)라고 썼다. 일상의 등잔불과는 다른 새롭고도 이상아릇한 불이라는 뜻이다.

에디슨이 탄소선전구를 발명한지 8년만의 일이다. 당시 전등을 켜기 위해 설치된 건청궁의 발전설비는 증기엔진에 화력발전방식의 수랭식(水冷式, Water cooling)이었으며, 건청궁 앞 향원지(香遠池)의 연못물을 끌어다가 냉각수로 사용하였다.

자연히 연못의 수온이 올라가면서 그곳에 살던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이를 보거나 전해들은 사람들은 당시 어지러운 시국에 빗대어 '나라가 망할 징조'라고 하였다. 그 원리를 알지 못한 다수의 백성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불안한 사건으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전기 도입은 조선후기 고종(高宗)의 개화정책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12살에 왕이 된 후 10년 만에 아버지 흥선

사진 ① 에디슨 탄소선전구/1920년대/전기박물관 소장 ⇨ 1879년 에디슨이 최초로 만든 탄소필라멘트 전구를 재현한 것
 사진 ② 전기시등도(電氣始燈圖, 경복궁 안 건청궁의 전등 점화)/1987년/한국전력공사 소장 ⇨ 1887년 이른 봄, 경복궁 안 건청궁에 우리나라 최초의 전기가 켜졌다. 전기등을 켜기 위한 발전소 가설이 향원정 연못가에 이루어졌고, 설비는 당시 동양에서 매우 우수한 것으로 16족광 백열등 750개를 켤 수 있는 규모였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기념하여 1987년 전기도입 100주년을 맞아 한국전력공사가 고종한 후 금추(鎡秋) 이남호(李南浩, 1908~2001) 화백에게 의뢰하여 그린 작품이다.
 사진 ③ 창경궁(昌慶宮)의 전등/1930년대 사진자료/전기박물관 소장
 사진 ④~사진 ⑦ 경성전기주식회사 조명제품들/1930년대 사진자료/전기박물관 소장
 사진 ⑧~사진 ⑨ 경성전기주식회사 영업소(경성, 인천)/경성전기주식회사, <뺨어가는 경성전기>, 1935
 ⇨ 경성전기주식회사 본사 영업소와 인천영업소 내부 전경. 사진에는 백열등, 스탠드, 벽부등, 상들리에 등 경성전기회사에서 생산한 여러 가지 조명기가 보인다. 당시 경성전기는 본사 및 지점에 영업소를 두어 각종 조명제품을 판매하였다.

대원군의 섭정에서 벗어나 친정(親政)을 하게 된 고종은 새로운 세계와 문명에 대해 많은 호기심과 수용력을 가지고 있었다. 개항을 통해 외국의 근대문물을 받아들이는 한편, 청과 일본·미국 등 여러 나라와 연차적으로 통상 조약을 체결하고 그들의 앞선 문물을 배워오도록 사절단을 파견하였다.

그 가운데 1882년 5월 조미수호통상조규(朝美修好通商條規, 통상조약)가 맺어진 이후 이루어진 보빙사(報聘使)의 파견은 이후 조선의 제도, 사회체계 변화에 큰 영향을 주었다. 문벌 있는 20대의 개화파 청년들로 구성된 보빙 사절단은 미국의 전기회사·철도회사·병원·소방서 등 근대적 국가시설과 제도를 둘러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지게 되었고, 조선에 우정국이나 경복궁 전등, 육영공원 등의 설치가 이루어지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친정 10년 만에 이루어진 이러한 결과들은 고종이 얼마나 국가의 근대화와 그를 통한 국운 회복을 위해 정치적 고민이 있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아무튼 전기 도입은 근대문명을 일궈낸 원동력이 되었으며, 근대의 상징으로서 전등은 점차 민간에까지 보급되기 시작하였다. 1898년 1월 18일 본격적인 전기사업을 위해 한성전기주식회사(漢城電氣株式會社)가 설립되고, 그 이듬해 4월 10일 종로에 거리조명용 첫 민간전등이 켜졌다. 그리고 1901년 8월 17일 진고개와 본정통(명동, 충무로)에 일본인 상가 주택가에 첫 영업용 전등이 밝혀졌다.

10촉광(燭光) 600등(燈)으로서 촛불에 익숙한 당시 사람들에게는 10촉광의 불빛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밝음이었다. 당시 사람들의 전등에 대한 생각을 빌리면, '수만의 전등불이 사람 없는 거리(종로)를 비추면 어떤 몽환경 같이 아름답고 찬란'하다거나, '천만촉의 휘황 전등불과 아울러 불야성(不夜城)을 이룬 것을 볼 때 실로 별천지에 들어선 느낌'(<<별건곤(別乾坤)>> 1929년 9월호)이라고 한 것처럼, 환히 비추는 거리의 가로등, 형형색색의 네온사인, 상점 내 진열장의 화려한 조명들은 당시 사람들에게 새로운 생활을 창조한 기적으로 포장되어 근대에 대한 강렬한 인상을 남기게 되었다.

실제 1920~30년대 조선인들 사이에서는 저녁 무렵의 진고개와 본정통의 상점가에 화려한 조명을 쫓아 배회하거나, 매년 4월이 되면 창경원(창경궁)에 전등이 장식된 밤 벚꽃 풍경을 보기 위해 몰려들어 하나의 진풍경을 자아냈다.

'4월 중순께가 되면 여기저기 꽃구경 타령에 겨우내 추위에 오므라들었던 사람들이 너나없이 까닭 모를 네 활개를 치며 봄바람에 공연히 흥청거려진다.' 창경원의 밤 벚꽃, <야앵풍경(夜櫻風景)>이 1933년 <<별건곤>> 4월호에 전하는 말이다. 



- 사진 및 자료
- 경성전기주식회사, <뽀여가는 경성전기>, 1935
- 개벽사, <별건곤(別乾坤)>, 1929(9월호), 1933(4월호)
- 글 : 민병근(전기박물관 학예연구사)
- 국립민속박물관, <빛/Light>, 2005
- 전기박물관 소장 자료

사진 10 경성(서울) 야경/1930년대 사진자료/전기박물관 소장
 사진 11 경성 독립문(獨立門) 부근 야경/1930년대 사진자료/전기박물관 소장
 사진 12 1930년대 경성 종로(鐘路) 야경/1930년대 사진자료/전기박물관 소장
 사진 13~사진 15 창경원(창경궁)의 벚꽃 풍경/1930년대 사진자료/전기박물관 소장